■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75-094.
http://doi.org/10.17948/kcs.2023..99.075

【 특집 : 한국 근대의 지식 문화 탐색과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 】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지식 사전 편찬 방법론 연구 1*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거시 구조를 중심으로—

도원영(都媛鈴)**

목 차

1. 머리말
2. 사전의 특징에 따른 거시 구조 구성의 원칙
3. 표제어 선정
4. 분류 정보의 특징과 한계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성격과 편찬 목적, 그에 따른 표제어 구성의 원칙과 기준, 세부 적용 단계, 표제어 목록에 대한 검증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성격에 대해 소개한 뒤 기존의 근대 간행물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큐레이션의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그런 다음 실질적인 거시 구조 구성의 원칙과 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기존에 출간된 사전류, 해제류 등을 수집, 조사하고 각 사전과 해제집에 등재된 표제어 목록을 작성한 뒤 이를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수록 종수를 점수화하여 1차 표제어 선정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논저 등에서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화하였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정을 통해 2차 표제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표제어가 적절한지,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교과서 편수자료, 한국언론사, 한국근현대사 등의 주요 교재에 수록된 색인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국영문사전 편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CKD-123002).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표제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신문 표제어의 경우 86%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확인되어 신뢰할 만한 표제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제어를 일정한 부류에 따라 구분하는 분류 정보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분야, 시기, 유형 등 세 기준의 분류 정보를 줌으로써 근대 간행물에 대한 검색 등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학 지식 사전 편찬 시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한국학 사전, 지식 사전, 근대 간행물, 거시 구조, 표제어 선정, 분류 정보.

1. 머리말

이 연구에서는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학습도구로서 지식 사전 거시 구조에 초점을 두고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표제어 선정 원칙과 기준, 절차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존 자원을 활용한 큐레이션으로서 거시 구조 구성 방법론을 제안할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연구자를 위한 지식 콘텐츠를 제작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 그간 국내 한국학에서 쌓아온 연구 결과는 논저, 자료집, 사전, 백과, 총서 등 다양한 미디어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자료 속에 내재하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게 구조화한 지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 한국학을 학부 과정으로 수학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지식 사전은 종합적이면서도 핵심적 지식이 요약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요 용어와 고유명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3]

---

1)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지원하는 K학술확산연구소지원사업,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 등이 그러하다. 외국어로 번역된 교재와 동영상 제작, 사전 편찬 등의 학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도원영 외에서는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인문 지식정보, 특히 사전류가 상당량 구축되어 있음에도 영문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수많은 언어권의 전공자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즉 영어로 풀이하는 지식사전의 편찬을 강조하였다. 도원영 외,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의 쟁점—〈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2022, 180-181면.

3) 이현주에서는 프랑스어 학습자가 프랑스어 기본 교육 과정에서 접하는 의료 분야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게도 전문용어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편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제어를 구성하는 거시 구조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간 사전학에서 언어사전의 거시 구조에 대한 연구는 세부적인 이론과 그에 따른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학사전이라고 이르는 외국어 학습용 사전의 경우 사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표제항 구성에 대해 상당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4] 그러나 지식 사전의 거시 구조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으로 다루어졌다. 백과사전의 경우 김창일(2009)에서 〈한국민속대백과〉에 대해, 장경식(2008)에서 〈한국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소개하고 있다. 특정 분야 전문 사전의 경우 민속예술사전에 대해 김윤지(2016)에서, 동학사전에 대해 한용운(2005), 문장인용사전에 대해 최경봉(2016)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 근대 간행물에 대한 지식 사전의 거시 구조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미 상당한 인문 지식자원을 디지털 데이터로 가공해 온바, 새로운 주제의식과 구성 방식에 따라 전과 다른 지식 콘텐츠로서 사전을 큐레이션하는 것은 인문지식의 공공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청 사항이 되고 있다. 지식사전의 거시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도 큐레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편찬된 전문 사전, 백과사전, 해제집 등의 인문 지식자원에 등재된 표제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에 대해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2장에서는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해 편찬하고 있는 사전의 성격에 대해 정리한 다음 이 사전의 거시 구조 특징에 대해 다룰 것이다. 3장에서는 표제어 선정을 위한 기초 DB 구축 과정을 소개하고 4장에서 표제어 선정 기준과 원칙, 적용의 결과, 검증 과정을, 5장에서는 분류 정보에 대해 소개

해외 한국학 전공자에게도 한국학의 전문용어가 기초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이현주, 「프랑스어 교육을 위한 직업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 연구—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67, 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9, 146-158면.

4) 남길임・안의정에서는 한국사전학회 20주년을 맞아 사전학 논문의 양적 추이와 연구 경향을 정리하였는데, 거시 구조에 대한 연구는 총 66편이 발표되었으며, 표제어 자체에 대한 연구는 총 4편으로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남길임・안의정, 「한국사전학회 20년과 한국사전학회의 과제」, 『한국사전학』 40, 한국사전학회, 2022, 121면.

하려고 한다. 이는 한국학 사전을 편찬하는 기획 연구자와 향후 어휘 지식 큐레이션 기획자의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2. 사전의 특징에 따른 거시 구조 구성의 원칙

사전 편찬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전의 성격을 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은 사전학적 기준으로 볼 때 백과적 성격을 가진 특수 사전, 외국인 전공자를 위한 사전, 국문 원고를 영문으로 옮긴 번역 사전이다. 이 사전이 다루는 시기는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이다. 간행물은 공적 출판 과정을 거친 신문, 잡지, 단행본을 말한다. 공적 출판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출판사와 발행인이 명시되어 있는지, 서지 정보가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말한다.[5)]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은 근대 개화기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출간된 간행물에 대한 기초적, 종합적 지식을 영어로 간명하게 기술하는 사전으로 설정하였다. 특정 간행물에 대한 지식에는 해당 간행물의 분류 정보, 서지 정보, 성격 정보뿐만이 아니라 간행물의 출간 경위, 변천 과정, 구성과 내용, 의의와 가치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전 이용자가 간행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더불어 표제어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포함된 풍부한 상세 설명을 구조화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하였다.[6)]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핵심 내용은 신문과 잡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 근현대사의 성과와 한국 언론사의 성과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단행본의 경우 해당 주제와 관련된 분과학에서의 연구

---

5)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전통 시대 방식으로 출간된 저술서가 존재한다. 출판사와 발행인이 없는 신문, 잡지, 단행본은 제외하였다.

6) 도원영 외에서는 사전학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미시 구조의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도원영 외,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의 쟁점—〈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2022, 185-186면.

성과를 총망라해야 하므로 백과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님의 침묵』의 경우 국문학, 『단방신편(單方新編)』은 한의학, 『국어문법』은 국어학, 『성산명경』은 종교학, 『대한신지지』의 경우 지리학, 『월남망국사』의 경우 동양사학 등 여러 분과학의 성과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전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거시 구조를 구성하는 적절한 방안은 기존의 성과를 최대한 조사, 수집하고 주요한 간행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표제어로서의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사전의 표제어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기존의 연구 성과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로 큐레이션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에서 인문 지식정보가 축적된 사전, 해제집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7]

사전학에서 거시 구조는 표제항을 구성하는 총괄적인 체계로서, 표제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안에서 표제어를 선정하고 배열하는 구조를 뜻한다.[8] 전통적으로는 표제어 선정 범위와 기준, 표제어의 배열, 동음이의어 구분,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분리 여부 등이 거시 구조의 주요한 논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종이사전의 경우 표제어를 자모순으로 배열할지, 주제별로 배열할지, 표제어를 주/부로 구분할지 등의 여부도 편찬 지침을 세울 때부터 중요한 문제이다.[9] 반면 디지털 사전으로 구축하고 웹 서비스를 전제한 〈한국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경우 동음이의어 구분 문제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10]

---

7)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은 웹 큐레이션의 일환으로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편집하는 과정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도 주요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원자료를 디지타이징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로 재구성한 토대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 의식에 따라 정보를 선별, 조합, 편집한 과정을 뜻한다. 도원영에서는 인문 지식 정보 자원을 확충하는 단계를 아카이빙(archiving), 디지타이징(digitizing), 큐레이션(curation)의 3단계로 보고 새로운 사전의 기획과 편찬 과정을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원영(2020), 「인문학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가능성」,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제11회 사전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0, 36면.

8) 홍종선 외에서는 사전의 구조를 최대 구조, 거시 구조, 미시 구조, 매개 구조, 접근 구조, 배분 구조로 나누었고, 거시 구조를 표제어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열한 표제항의 종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홍종선 외,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2009, 99-100면.

9) 아울러 하나의 형태를 동음이의어, 즉 동형어로 볼지, 다의어로 볼지가 배열상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10) 예를 들어 '독립신문'의 경우 1896년, 1919년 상해, 19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각각 발행된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표제어는 이용자의 궁금함을 해소해 주는 참조의 길잡이가 된다. 또한 사전은 어휘 저장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휘 규모를 산정하는 척도가 되고 사전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나아가 사전의 유형별로 표제어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언어사전의 경우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는 곧 어휘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학습사전의 표제어는 학습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용어사전의 경우 해당 분야의 규범적, 표준적 용어를 싣게 되므로 규범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백과사전의 표제어는 해당 분야의 지식 체계 속에 있는 항목을 해설하기 때문에 지식 체계를 확인하는 근거로 쓰인다.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에서 표제어의 역할은 이 사전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지식 사전으로서 근대 신문, 잡지, 단행본 중 역사적, 학술적 의의가 큰 표제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해외 한국학 전공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제어 선정 원칙과 범위를 정하였다. 우선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경우 세 가지의 선정 원칙을 세웠다.

첫째, 한국근현대사, 학문분과별 주제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간행물을 선정한다.
둘째, 교육적 가치와 필요가 있는 간행물을 선정한다.
셋째, 대중적 관심과 의의가 있는 간행물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표제어의 선정 범위는 시기, 유형,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첫째, 근대 개화기부터 1945년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정기간행물과 부정기간행물 및 단행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특정 분야와 관련된 간행물 외 종합적 성격을 가진 간행물도 선정한다.
넷째, 교지, 보고서 등 한정된 영역에서 유통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종이 존재한다. 최초 발행 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리에 대한 문제는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출간 시기의 상한선을 1945년 8·15 해방이 아니라 1945년으로 잡은 것은 해방 이후 연말까지 상당수의 신문이 새롭게 발행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기 위해서였다. 신문과 잡지의 경우 특정 분야로 한정하기 어려운 종합지가 많아서 이를 포괄하고자 하였다. 특정 학교의 교지나 정부의 보고서 등은 다수의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배제하였다.

이제는 실질적인 선정 작업에서 준거가 되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표제어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출간 주요 백과사전과 전문 사전, 국어사전, 해제집 등에 두루 수록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둘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된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셋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여타의 사전이나 해제집에 다수 수록된 간행물은 따로 심의하여 선정한다.
넷째, 해당 분야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이나 저서에서 다루어진 간행물을 선정한다.

위와 같은 기준은 기구축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큐레이션의 입장에서 세운 것이다. 높은 수준의 백과사전과 전문 사전,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해제집 등에서 두루 수록되었는지를 살펴서 수록 종수가 높은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출간한 지 오래된 백과사전이나 자료집은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나 평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이나 저서 등의 학술적 성과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따로 심의하는 과정을 두었다.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표제어 규모는 총 500항목이다. 잡지 200종, 신문 100종, 단행본 200종 규모로 편찬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잡지 200종, 신문 80종, 단행본 70종을 선정하여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1]

11) 현재 2차 연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차 연도 사업은 2024년 10월에 완료 예정이다. 간행물별 최종 표제어의 종수는 변동될 수 있다.

3. 표제어 선정

1) 표제어 선정 절차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표제어 선정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간행물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결정하고 세부 항목을 입력하였다. 3단계에서는 표제어의 중요도를 수록 종수와 선행 연구 유무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4단계에서는 내부 연구진이 직접 평정 작업을 실시하여 표제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단계에서는 아래 열거한 백과사전, 전문 사전, 일반 사전, 해제집 등에 수록된 표제어를 조사하였다.

(1) 기초 자료
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동아대백과사전〉 등
전문사전: 〈동아시아언론매체사전〉, 〈현대언론매체사전〉,
〈현대한국문학대사전〉,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근현대사사전〉 등
해제집: 〈근대한국문학해제집〉, 〈한국사 DB 해제〉, 〈한국잡지백년〉,
〈한국신문100년〉 등
전문서: 〈한국언론사상사〉, 〈한국잡지사상사〉 등.
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단계에서는 위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뒤 표제어 선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결정하였다. 표제어 선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항목은 두 부류로 나뉜다. 우선은 간행물에 대한 정보로 기본 정보에 해당한다. '번호/표제어/분야/유형/시대/간행 연도/정의'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 근대 신문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중 기본 정보

번호	표제어	분야	유형	간행 연도	시대	정의
24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언론・출판 /신문	문헌	1904	근대	서울 전동에서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하여 1904년에 창간한 신문.

32	독립신문(獨立新聞)	언론・출판/신문	문헌	1896	근대	1896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일간신문
39	만세보(萬歲報)	언론・출판/신문	문헌	1906	근대	동학의 제3대 교주 손병희의 발의로 1906년에 창간한 신문.
72	한성순보(漢城旬報)	언론・출판/신문	문헌	1883	근대	통리아문 박문국에서 국민대중의 계몽을 위하여 1883년에 창간한 신문.
80	황성신문(皇城新聞)	언론・출판/신문	문헌	1898	근대	남궁 억 등이 국민지식의 계발과 외세침입에 대한 항쟁의 기치 아래 기존의 대한 황성신문을 이어받아 1898년에 창간한 신문.
35	동아일보(東亞日報)	언론・출판/신문	문헌	1920	근대	동아일보사에서 김성수 등 78명의 발기인에 의하여 1920년에 창간한 신문.
62	제국신문(뎨국신문帝國新聞)	언론・출판/신문	문헌	1898	근대	민족주의적인 성격으로 1898년에 창간한 일간신문.

다음 3단계는 사전류, 해제집 등의 등재 유무, 논저 등을 통한 선행 연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다. 각 자료별로 항목화하여 등재 유무를 표시하고 논저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근대 신문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중 등재 유무 정보

표제어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역사통합시스템	근대한국문학해제집	한국근대소설사전 1890-1917	민백-한국고문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두산백과	기타백과	수록종수	논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	1	1	1	1			1	1	1	3	11	1
독립신문(獨立新聞)	1	1	1	1				1	1	1	4	11	1
만세보(萬歲報)	1	1	1	1				1	1	1	3	10	1
한성순보(漢城旬報)	1	1	1	1	1			1	1	1	2	10	1
황성신문(皇城新聞)	1	1	1	1	1			1	1	1	2	10	1
동아일보(東亞日報)		1	1	1	1			1	1	1	2	9	1
제국신문(뎨국신문帝國新聞)	1	1	1	1	1			1	1	1	1	9	1

4단계에서는 내부 연구진의 평정 과정을 거쳤다. 근대사, 근대국어학사, 사전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각각 등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가중

치를 줄 만한 간행물의 경우 '특이사항'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근대 신문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중 전문가 평정표

번호	표제어	분야	유형	간행 연도	시대	수록 종수	논저	검토1	검토2	검토3	특이 사항
24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언론·출판 /신문	문헌	1904	근대	1	1	1	1	1	
32	독립신문(獨立新聞)	언론·출판 /신문	문헌	1896	근대	1	1	1	1	1	
39	만세보(萬歲報)	언론·출판 /신문	문헌	1906	근대	1	1	1	1	1	
72	한성순보(漢城旬報)	언론·출판 /신문	문헌	1883	근대	1	1	1	1	1	
80	황성신문(皇城新聞)	언론·출판 /신문	문헌	1898	근대	1	1	1	1	1	
35	동아일보(東亞日報)	언론·출판 /신문	문헌	1920	근대	1	1	1	1	1	
62	제국신문 (뎨국신문帝國新聞)	언론·출판 /신문	문헌	1898	근대	1	1	1	1	1	

2) 선정 표제어의 적절성 검증

3.1에서는 단계별 표제어 선정 방법과 예를 제시하였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되, 전문가 평정 과정을 거친 근대 간행물 표제어가 해외 한국학 전공자의 학습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가 큰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표제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검증이다. 아래는 내부 연구진 평정을 마친 신문 80종, 단행본 70종에 대한 목록을 한국근현대사, 한국근대문학사 전공자 세 명에게 검토를 받았다. 선정된 후보가 전공 과정에서 필요한 간행물인지, 누락된 주요 표제어가 무엇인지, 제외해야 할 간행물이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문을 하였다. 주요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적절성 검토를 위한 질의 사항
ㄱ. 선정된 간행물 표제어는 해당 분야 전공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가
ㄴ. 누락된 간행물 표제어가 있는가
ㄷ. 제외해야 할 간행물 표제어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친일 인물이나 단체와 관련된 간행물의 선정,

국외, 외국인 발행 간행물 선정의 문제에서, 친일 성격의 신문, 국외 발행 신문도 중요도가 높으므로 등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발행 호수가 미미하거나 종간·복간 등에 관계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신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안받았다. 특히 특정 분야의 비중이 높지 않도록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12]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표제어를 조정하였다.

둘째, 실제 한국학 관련 교재에서 다루어진 간행물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근현대사, 한국언론사 등 5종의 참고 문헌 색인과 2017년 교과서 편수 자료에 제시된 '한국사' 분야 용어 목록을 대상으로 '신문'의 수록 여부를 살폈다.

(3) 확인용 자료
ㄱ. 한국근현대사(2005), 한국근현대사강의(2013)
ㄴ. 한국언론사(1990), 한국언론사(1996), 한국언론사(2015)
ㄷ. 2017년 교과서 편수 자료 Ⅱ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표제어 중 신문 80종에 대해 총 6종의 교재 및 목록을 확인한 결과 총 69종의 신문이 색인 및 용어 목록에서 수록되어 있었다. 아래는 3종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된 신문 목록이다.

[표 4]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신문 표제어의 검증 목록

표제어	한국 근현대사 강의	한국 근현대사	한국언론사 (김민환)	한국언론사 (채백)	한국언론사 (정진석)	교과서 편수자료	확인 종수
독립신문(獨立新聞)	1	1	1	1	1	1	6
황성신문(皇城新聞)	1	1	1	1	1	1	6
동아일보(東亞日報)	1	1	1	1	1	·	5
조선일보(朝鮮日報)	1	1	1	1	1	·	5
대한매일신보 (大韓每日申報)	1	·	1	1	1	1	5
대한민보(大韓民報)	1	1	1	1	1	·	5
한성신보(漢城新報)	1	1	1	1	1	·	5
매일신보(每日申報)	·	1	1	1	1	·	4

12) 예를 들어 종교 계통의 신문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신문이 여러 종 선정된 경우 일부를 줄이고 타 종교 신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단행본의 경우 특정 작가의 작품이 여러 종 선정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중앙일보(中央日報)		1	1	1	1		4
경남일보(慶南日報)		1	1	1	1		4
경향신문(京鄕新聞)		1	1	1	1		4
대동공보(大東共報)	1	1	1	1			4
대한신문(大韓新聞)		1	1	1	1		4
매일신문(每日新聞)		1	1	1	1		4
시사신문(時事新聞)		1	1	1	1		4
시사총보(時事叢報)		1	1	1	1		4
신한민보(新韓民報)	1		1	1	1		4
중외일보(中外日報)		1	1	1	1		4
한성순보(漢城旬報)		1		1	1	1	4
한성신보(漢城新報)		1	1	1	1		4
경성일보(京城日報)			1	1	1		3
공립신보(共立新報)	1		1	1			3
그리스도신문			1	1	1		3
대동공보(大同公報)	1		1	1			3
대한일보(大韓日報)			1	1	1		3
독립신문(獨立新聞)			1	1	1		3
독립신문(獨立新聞)			1	1	1		3
상무총보(商務總報)			1	1	1		3
시대일보(時代日報)			1	1	1		3
제국신문 (뎨국신문帝國新聞)	1	1	1				3
조선중앙일보 (朝鮮中央日報)			1	1	1		3

전체 80종 중에서 69종이 확인되었고, 이는 선정 표제어의 86%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로써 이 연구에서 세운 표제어 선정 기준과 원칙,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3]

4. 분류 정보의 특징과 한계

분류 체계는 분류 대상 간 유의미한 차이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주나 위계로 구조화한다. 차이를 드러내는 기준을 복수로 지정하게 되면 분류 대상에 대한 다면적인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다. 지식 사전의 경우 표제어의 선정

13) 나머지 11종의 신문, 즉 고려시보, 기독교신문, 기독신문, 도쿄조선민보, 레닌기치, 북미시보, 선전, 신흥교우보, 앞길, 한족신보 등은 6종의 색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언론사에서 중요도가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 비교적 최근의 학술 연구에서 다룬 바가 있고 여러 백과 등에 등재되어 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표제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해 분류 정보를 줌으로써 체계 속에서 표제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표제어를 주제별로 배열할 수 있다. 디지털 사전의 경우 분류 정보는 표제어를 상세하게 추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검색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14]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경우 분류 정보를 표제어에 대한 기본 정보란에 제시하고 있다.[15]

기본 정보는 표제어에 대한 메타 데이터로서, 한국학 용어 네트워크에서 해당 표제어의 좌표를 보여 준다. 분야, 유형, 시대로 구성되는 분류 정보의 하위 체계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분야와 유형의 체계이다.

[표 5]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분류 정보_분야

대분야	**중분야**
지리	인문지리/자연지리
역사	선사문화/고대사/고려시대사/조선시대사/근대사/현대사
정치・법제	법제/행정/국방/외교/정치
경제・산업	경제/통신/교통/산업
사회	사회구조/촌락/가족
과학	과학기술/식물/동물/의약학
문학	고전산문/고전시가/현대문학/한문학/구비문학
언어	문자/언어
철학・종교	천주교/개신교/불교/유교/민간신앙/천도교/대종교/원불교/도교
예술・체육	건축/공예/서예/조각/회화/국악/체육/현대음악/연극/영화/사진/무용/대중음악
언론・출판	**신문/출판/방송[16]**
교육	전공교육/사회교육/학교교육
생활	민속/주생활/식생활/의생활
북한	경제/자연지리/산업/통신/과학/동물/식물/의약학/ (…) /종교/인문지리/교통

14) 네이버 오픈사전PRO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항목을 두어 편찬자가 자신의 사전 정보에 맞게 다양한 분류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편찬자가 지정한 카테고리에 따라 자유롭게 표제어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open-pro.dict.naver.com/_ivo/home

15)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은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소표제 정보'의 삼중 구조로 구성된다. 이는 웹 콘텐츠로 구축되고 있는 백과류에서 널리 쓰이는 형식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등이 대표적이다. 하위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제어 기본 정보: 표제어, 표제어(영문), 대분야, 중분야, 대유형, 중유형, 시대
상세 정보: 성격, 창간 연도, 종간 연도, 간행처, 간행 주기, 판형, 총 호수
소표제 정보: 정의, 요약, 창간 경위, 구성과 내용, 변천 및 현황, 의의, 참고 문헌

16) 웹 서비스 중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23, https://encykorea.aks.ac.kr/)에서 확인할 수

분야와 유형 모두 '대분야/중분야', '대유형/중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간행물의 경우 '언론, 출판〉신문/출판/방송', '문헌〉고서/도서/복합매체기록물/연속간행물/문서'로 구분된다.

[표 6]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분류 정보_유형

대유형	**중유형**
개념	개념/문서
단체	학교/단체
놀이	놀이
생물	동물/균류・세균류/식물
문헌	**고서/도서/복합매체기록물/연속간행물/문서**
물품	물품
사건	사회운동/조약・회담/전쟁
유적	유적/건물/터/탑・승탑・비/고인돌・고분・능묘
음식・약	약/음식
의례・행사	행사/의례・세시풍속
의복	의복
인물	전통 인물/가공 인물/근현대 인물
작품	서화/불상/조각・공예/무용・민속극・연극/영상/음악/문학/설화/민요・농악
제도	관청/상훈/법령・제도/관직
지명	행정지명・마을/고지명/군락・서식지・철새도래지/시설/자연지명
문화재	문화재/자연지명

[표 7]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분류 정보_시대

선사	석기	구석기/중석기/신석기
고대	초기국가시대	고조선/부여/옥저/동예/삼한
	삼국시대	가야/고구려/백제/신라
	남북국시대	통일신라/발해/고려・마진・태봉/후백제
고려	고려 전기/후기	
조선	조선 전기/후기	
근대	**개항기/일제강점기/대한제국기**	
현대	대한민국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경우 신문, 잡지, 단행본이 출간된 연도를

있는 분야 정보와 사전 집필기 내부의 분야 정보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대분야 '문헌'의 하위에는 '언론・방송/출판'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준으로 개항기, 일제강점기, 대한제국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위와 같은 분류 정보는 사전 편찬 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배분되어 있다.



[그림 1]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편집기 구조에서 '분류 정보'

위와 같은 분류 정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의 분류 체계와 동일하다. 이는 한국학 지식사전 표제어로서 공통된 체계 안에서 네트워크화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당시 전체 표제항을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다중 분류 기준을 적용한 유의미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확장되고 심화된 학술 분야 분류나 과학 기술 표준 분류 등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특수 분야의 신문이나 잡지를 검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맺음말

앞에서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성격과 편찬 목적, 그에 따른 표제어 구성의 원칙과 기준, 세부 적용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이 근대 개화기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출간된 간행물에 대한 기초적, 종합적 지식을 영어로 간명하게 기술하는 사전으로서, 특정 간행물에 대한 지식에는 해당 간행물의 분류 정보, 서지 정보, 성격 정보 뿐만이 아니라 간행물의 출간 경위, 변천 과정, 구성과 내용, 의의와 가치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백과적 성격을 가지며 이를 쉬운 영어로 집필하는 이언어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 언론사, 분과학문별 연구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근대 시기 간행물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거시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류, 해제류 등을 수집, 조사하고 각 사전과 해제집에 등재된 표제어 목록을 작성한 뒤 이를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수록 종수를 점수화하여 표제어 선정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논저 등에서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분석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화하였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정을 통해 표제어 목록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표제어가 적절한지,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교과서 편수자료, 한국언론사, 한국근현대사 등의 주요 교재에 수록된 색인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 표제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신문 표제어의 경우 86%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확인되어 신뢰할 만한 표제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제어를 일정한 부류에 따라 구분하는 분류 정보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분야, 시기, 유형 등 세 기준의 분류 정보를 줌으로써 근대 간행물에 대한 검색 등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의 거시 구조 구성에 대해 그 원칙과 기준, 적용 방법론을 사전학적 토대 위에서 세우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세부적인 표제어 평정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한국근현대사, 한국문학사 전공의 전문가 외 타 분야 전문가의 평정 과정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 선행 연구 유무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논저의 비중과 중요도에 대해 등급화하지 못한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남은 편찬 작업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논저

강경표, 「온・오프라인 통합형 백과사전 구축 사례 연구—『한국민속예술사전』을 중심으로—」, 『박물관회보』 38, 한국박물관학회, 2020, 59-89면.

강재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사업(2007-2017)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한국사전학』 34, 한국사전학회, 7-37면.

김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사전과 데이터」, 『디지털 인문학과 사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49-87면.

김윤지, 「『한국민속예술사전』편찬을 위한 민속무용 표제어 추출의 설계 및 적용」, 『한국사전학』 27, 한국사전학회, 2016, 109-128면.

김창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웹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안」, 『동양학』 5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3, 189-211면.

김창일,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편찬 방향과 전망」,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2009, 211-248면.

남길임・안의정, 「한국사전학회 20년과 한국사전학회의 과제」, 『한국사전학』 40, 한국사전학회, 2022, 107-139면.

도원영, 「새로운 사전의 필요성과 가능성」, 김선철 외, 『디지털 시대의 사전』, 한국문화사, 2019, 141-167면.

_____, 「한국문학 번역을 위한 특수 사전 현황 분석」, 『민족문화연구』 9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49-73면.

_____, 「인문학적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가능성」,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제11회 사전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20, 35-39면.

도원영, 차준경, 신상현, 최호철, 「국내 출간 사전의 동향 분석: 연도별 주제별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70, 한민족문화학회, 2020, 235-271면.

도원영・방혜숙・최경봉・류시현・장경식, 「해외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학 영문 사전 편찬의 쟁점—〈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 사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96, 민족어문학회, 2022 175-196면.

박소영・오영창・고정희, 「한국문화 국영문 사전 편찬의 방향성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8-3, 한국언어문화학회, 2021, 87-116면.

박현주, 「문화재용어사전의 구축 현황 및 번역보조도구로서의 활용성에 대한 제언」, 『번역학연구』 15-2, 한국번역학회, 2014, 59-94면.

이현주, 「프랑스어 교육을 위한 직업 분야 전문용어의 특징 연구—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67, 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9, 135-163면.

장경식,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구성과 특징: 영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5판과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1, 한국사전학회, 2008, 111-131면.

최경봉, 「국어사전에서 종교 용어의 처리 방안」, 『우리어문연구』 54, 우리어문학회, 2016, 541-588면.

_____, 「'문장인용사전' 편찬의 의의와 가능성」, 『한국사전학』 27, 한국사전학회, 2016, 250-277면.

한용운, 「동학사전구조」, 『동학학보』 9-2, 동학학보, 2005, 357-376면.

홍종선 외,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2009.

2. 검토 자료
교육부, 『교과서 편수 자료 (II)—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교육부, 2017.
김민환,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6.
이영철, 『한국근현대사』, 2005, 고시연구사.
정진석, 『한국언론사』, 나남출판, 1990.
채 백, 『한국 언론사』, 컬처룩, 2015.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 근현대사 강의』, 한울아카데미, 2013.

3. 참고 사이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2023.

【Abstract】

A Study on the Knowledge Dictionary Compilation Methodology for Overseas Korean Studies Major 1: Focusing on MacroStructure of *English Dictionary of Modern Korean Publications*

Doh, Wonyoung*

In this study,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ompilation of *English Dictionary of Modern Korean Publications*, the principles and criteria of the composition of headwords accordingly, the detailed application stage, and the verification process of the list of headwords were examined. First of all, *English Dictionary of Modern Korean Publication* is a dictionary that briefly describes basic and comprehensive knowledge of publications published from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to 1945. It has the nature of an encyclopedia that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history of publication, the process of change, composition and content, meaning and value of publications, as well as information on the nature and nature of publications. Above all, it was important to organize a macro-structure focusing on the achievements of modern period publications that were mainly covered in Korean history, Korean press history, and research history by disciplinary.

Therefore, in this study, dictionaries and bibliographical introductions we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a list of headwords registered in each dictionary and bibliographical introductions was prepared, and the number of entries was scored overall to prepare a list of candidates for selection.

Then, a list of candidate headword was prepared by scoring the numbers recorded in dictionaries, etc. After that, it was scored by checking whether there was any research on academic subjects in the thesis. Then, the final headline list was prepared through the evaluation of experts in the field. Finally, expert consultation was conducted to ensure that the selected headwords were appropriat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headwords were included in the index of major textbooks such as textbook compilation data, Korean media history, and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In the case of newspapers, 86% of the headwords were identified in the index. In addition, classification information that classifies headwords according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 of Korean Studies, Korea Univ.

to certain categories was introduced. A method was applie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searching for modern publications by giving classification information of three criteria, such as field, period, and typ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principles and preparing specific methods when compiling a dictionary of Korean studies knowledge in the future.

Keywords: Korean Studies Dictionary, Knowledge Dictionary, Modern Publication, Macro-Structure, Selection of Headword, Classification Information.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20.